



▲2025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 개최(농협제공)

농협, ‘2025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농심전심운동’ 추진 결의”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6일과 17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군 불문비스타 컨퍼런스 홀에서 강호동 회장과 경기 관내 농축협 조합장 161명, 시·군 지부장 31명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기농

협 조합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 관내 농축협 조합장 간 소통·화합·공감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농업·농촌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농업의 가치향상을 위해 상호 토

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포럼 첫날에는 전 조합장이 농업·농촌의 가치확산을 위한 ‘농심전심운동 추진 결의 대회’를 실시하였다. 강호동 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새로운 대

한민국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였으며, 포럼 의장인 박경식 안산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은 “농민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으로 경기농협이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농진청, 더 나은 농업·농촌 실현 다짐

국정과제 내재화 위한 간부 공동 연수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일 본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의 내실 있는 이행계획과 미래 방향 설정을 위한 간부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를 내재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다짐했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역량을 발휘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섭 농업정책관이 ‘새 정부 농정 방향 및 주요 국정과제’ 전반을 설명했다. 이어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강호진 농무관이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본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 변화 그리고 농축산 과학과 기술’을 주제로 농업회사법인 성우 이도현 대표의 특

별강연도 있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국정과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바탕으로 청은 농업 분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수요자, 농업인,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 연구

와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는 미래 농업 방향을 설정, 조기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라며, “활발한 소통과 토론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과학기술 기반 혁신으로 농업·농촌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0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농업·농촌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과 미래 방향 설정을 위한 간부 공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저수지 수생식물 ‘마름’으로 친환경 뷰티 브랜드 ‘누로아’ 개발

수생식물 자원에 경제적 가치 부여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내벤처팀 ‘위터팜’이 저수지 수생식물인 ‘마름’을 화장품 원료로 업사이클링(고부가가치 재활용)한 친환경 뷰티 브랜드 ‘누로아(NUROA)’를 공개하고, 첫 제품인 ‘누로아 앰플’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마름’은 농업용 저수지에 자생

하는 대표적 수생식물로, 생장기에는 영양염을 흡수해 조류 확산을 억제하는 등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을철 대량 고사 시 분해 과정에서 용존산소가 소모되고 영양염이 재유입돼 수질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다.

위터팜 팀은 마름 열매에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추출·화인하고, 이를 화장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수생식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누로아’의 첫 제품인 ‘누로아 앰플’은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등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마름열매

추출물과 니아신아마이드 등 식물성 원료를 적용해 피부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개발됐다. 해당 제품은 공사 기념품 용도로 제작·활용되며, 일반 판매는 하지 않는다. 박소미 한국농어촌공사 위터팜 팀장은 “수생식물 자원을 활용해 농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 공략! 인도 K-푸드 페어 개최



▲인도 뭄바이 K-푸드페어 B2B 수출상담 모습

참여한 소비자제품평회를 진행하고 잡채·떡볶이·닭갈비 등 참가업체 제품을 활용한 메뉴를 시연하는 오픈키친도 운영했다. 품평회에서는 참가업체 제품의 맛, 패키지,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업체들의 인도 시장 전략 구체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키친에서는 바이어들이 직접 K-푸드를 맛보고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 참가업체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1:1 수출상담회·소비자제품평회 성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4일부터 15일까지 글로벌 사우스 빅4의 중심인 인도 뭄바이에서 ‘2025 K-푸드 페어’를 개최하며 인구 14억 명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인도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인도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라면(20.4% ↑) ▲음료

(11.0% ↑) ▲김치(48.5% ↑) 등 유망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 수출기업 23개사와 인도·네팔 바이어 69개사가 참가했다. 행사 기간 1대1 수출상담 397건이 진행돼 총 12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특히 컵볶이·컵부처를 중심으로 500만 달러 규모의 MOU 16건이 체결되는 성과도 올렸다. 또한, 현지 소비자 60여 명이

전남농기원, 감귤 신품종 ‘미래향’·‘윈터프린스’ 보급

국내 육성 신품종으로 전남 감귤 산업 새바람 지역 적응형 재배기술... 농가 소득 향상 기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고흥군에 국내 육성 감귤 신품종인 ‘미래향’과 ‘윈터프린스’를 0.5ha 이상 보급해 지역 맞춤형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전남 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

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와 협력해 추진되며, ‘감귤 우량계통의 지역적응평가’와 ‘감귤 신품종 전신포 조성’ 두 가지 시험으로 나뉘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수행된다. 국내에서 육성된 감귤 신품종 ‘미래향’은 껍질이 얇고 잘

벗겨지며 향기가 우수해 소비자 기호도가 높다. 또한 12월에 수확이 가능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윈터프린스’는 당도가 높고 산미의 조화가 뛰어나며, 12월 수확이 가능해 기존 만감류에 비해 출하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고흥지역에 신품종을 우선



▲ 국내에서 육성된 감귤 신품종 ‘미래향’ (전남농기원 제공)

식재해 전남 지역의 기후와 재배환경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전신포 조성을 통해 농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손쉽게 만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가락시장을 한눈에!

우리가족 건강밥상에 올라오는 안전한 농산물 이야기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락시장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www.garak.co.kr

SAFFC_OFFICIAL